



팔레스타인 저항이 이스라엘에 한 방 먹이다!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 반대한다

1968년 베트남 구정("뗏") 공세 때처럼 팔레스타인인들의 기습 공격은 제국주의의 콧대를 꺾었다.

이스라엘 국가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했고, 충격 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스라엘 국가는 지난 주말 겪은 패배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보복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요일 자 <이스라엘 하옵>은 이렇게 논평했다. “우리는 적들의 등뼈를 부러뜨려야 한다. 적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제발 그만하라고 빌게 만든 뒤, 거기에 대고 무자비하게 폭격하고, 잔혹하고 살 새 없이 공격을 퍼부어야 한다.”

이스라엘 국가는 모든 국제법을 무시하고 가자 지구에 사는 수백만 명을 집단적으로 처벌하려 한다.

일요일에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점령군이 “가자로 가는 전기, 연료, 재화를 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네타냐후는 “우리는 길고 고된 전쟁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이 전투기와 대포를 동원해 폭격한 지 24시간 만에 팔레스타인인 12만 3540명이 집을 잃었다고 UN은 밝혔다.

끔찍한 고통과 살육, 학살이 벌어질 것이다. 모두 이에 맞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무리 보복하더라도 팔레스타인인들이 이미 거둔 성과를 되돌릴 수는 없다.

이와 아주 비슷한 상황이 1968년 1월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구정 공세였다. 구정 공세는 미국 정부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기구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

남베트남 수도 사이공에서 민족해방전선 전사들은 미 대사관 건물에 구멍을 내고, 점령군의 땅을 밟았다. 지난 토요일 팔레스타인인들도 자신들을 가뒀던 장벽을 허물고 이스라엘에 빼앗긴 땅을



밟았다.

구정 공세는 미국의 패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건이었다. 지난 주말과 꼭 마찬가지로 구정 공세는 억압 받는 이들이 그저 불쌍한 피해자가 아니라 역사의 주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스라엘과 꼭 마찬가지로 당시 미국도 다가오는 폭풍을 양잡아 보고 있었다. 미국 장교 샘 오글즈비는 베트남 내 스파이들이 “발전기 소리로 귀가 먹먹한 기지 안에 머무르며 실제 세계와는 차단된 채, 자신들이 돈으로 매수한 정보원들이 제공하는 가짜 ‘첩보’나 수집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장교들도 하마스가 거대한

전투에 나설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이스라엘 신문 <하레즈>에 따르면, 지난주까지도 보안 당국의 동향 보고서는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피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봤다. 로켓 공격과 남부 습격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장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베트남 구정 공세는 군사적으로는 결국 패배했다. 구정 공세에 참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8만 4000명 중 5만

8000명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하거나 포로로 잡혔다.

미국의 전범 헨리 키신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군사적 전쟁을 치렀지만, 우리의 적은 정치적 전쟁을 치렀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게릴라전에 관한 기본 명제를 간과하게 됐다 — 게릴라는 패배하지 않는 이상 이긴다는 것을 말이다.”

베트남에서 팔레스타인까지 제국주의에 맞선 저항은 정당하다. 그리고 저항으로 승리할 수 있다.

<노동자연대> 정규호에는

wspaper.org

이스라엘 비판은 유대인 혐오가 아니다, 하마스의 민간인 공격 논란, 유대인 역사학자 일란 파폐가 말하는 이스라엘 내 반네타냐후 시위 등 유익하고 따끈따끈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정권 심판 정서가 압도하다

국민의힘 김태우는 민주당 진교훈 후보에게 4만 표(17.2퍼센트)가 넘는 차이로 패배했다.

딱 1년 4개월 만에 김태우는 3만 7000여 표를 잃은 반면, 민주당은 1만 2000여 표가 늘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득표율은 윤석열의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55~60퍼센트)와 긍정평가 비율(35~40퍼센트)과 흡사하다. 일개 구청장 선거였는데도 전국적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강서구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를 지역 현안이 아니라 정권 심판의 관점에서 투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공세에 대한 반감, 강경 우익화 흐름에 대한 경각심 · 분노 · 짜

증이 표로 나타난 결과였다.

이례적으로 사전투표 투표율이 높았던 것(22.6퍼센트)은 윤석열 심판 투표의 바람이 불었던 것이다. 사전 투표에서 진교훈은 김태우보다 갑질을 더 받았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지역 개발이 쟁점이 되고 전반적 무관심 속에서 선거가 치러져 보수층이 결집하는 것이 그나마 근소한 차이라도 이기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자신이 김태우를 사면복권해 강서구청장 선거를 “전국 선거”로 만들었다. 윤석열의 선거에서 참패했으니 이번 결과가 더욱 통쾌하다.

정치적 위기 심화, 우익적 공세 지속

이번 선거로 윤석열 정부의 정치 위기는 더 심화될 것이다. 개악 동력이 약화될 것이고, 윤석열 주도로 총선을 치르는 것은 난망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친서방 제국주의적 · 친기업 · 우익적 기조들에서 물러서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한 · 미 · 일 안보 공조 강화, 부자 감세, 긴축, 규제 완화 등은 실행되고 있지만, 윤석열이 애초 핵심 개악 과제로 표방한 노동 · 연금 · 교육 개악은 시작도 못하며 지체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선불리 양

보 제스처를 취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다가는 대중의 사기가 오르고 기업주들이 실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것은 윤석열이 피하고 싶은 일이다. 그런데 그럴수록 정치 위기가 깊어지는 것이 윤석열의 딜레마다.

보궐선거 다음 날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김행 장관 임명 포기를 윤석열에게 건의했다. 바로 그 시각에 검찰은 이재명을 백현동 개발 건으로 기소했다. 정치적 반대파 공격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모순된 신호는 윤석열 정부가 처한 난관을 보여 준다. 윤석열 정부가 정치 위기를 겪고 있지만 동시에 강경 우익적 태세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과 제국주의에 맞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영웅적 무장 투쟁은 중동 곳곳의 노동자 대중 투쟁이 뒷받침돼야만 더 나아갈 수 있다.

팔레스타인의 위대한 저항은 서방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보복에 이제 직면해 있다.

불불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세력, 가자 지구의 민간인 지역을 거리낌 없이 파괴하고 이를 자랑하는 세력에 맞서 팔레스타인인들은 과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팔레스타인 전사를 “인간 짐승”이라고 칭한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요아브 갈란트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까?

유엔 같은 기구나 강대국들로부터 구원은 없을 것이다. 오랫동안 그들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학살과 강탈을 겪더라도 타협하고 진정하라고만 해 왔다.

그 말을 따른 결과는 이스라엘의 경멸

적 대접이었다. “온건파”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와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는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2014년 이래로는 이 조직들과 협상조차 하지 않았다.

아랍 정권들은 자국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만큼, 팔레스타인 저항이 불평등과 민주주의, 자유라는 문제를 매우 날카롭게 제기하는 한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이란 정권은 권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하고 있고 이들은 해방자가 아니다.

75년간 아랍 정권들은 팔레스타인의 편에 선다고 떠들었으나 배신했을 뿐이다. 그 정권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고립시키려고 관계 “정상화” 운운하자 그 전략에 놀아났다.

이스라엘 내부에서 해법이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 1년이 넘게 언론에서는 이스라엘 정부 내부의 분열과 긴장에 관한 보도가 넘쳐났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저항으로 시온주의가 위기에 처하자마자 모든 얘기는 국민 통합 정부 결성과 “반대파”가 우두머리 도살자 벤야민 네타냐후와 함께하기로 했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영웅적인 무장 투쟁은 이스라엘에 거듭 도전해 왔다. 팔레스타인인들은 필요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저항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F-16 전투기와 최신 살상 기술 앞에서 영웅적 행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온주의와 제국주의에 도전할 혁명적 사회주의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

그런 대안의 필수적 요소는 온갖 지배 계급과 분리된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운동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레바논과 요르

단의 난민 캠프에서 시작된 대중적 민족주의 운동부터 1987년 1차 인티파다와 2021년 총파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요한 팔레스타인 저항의 물결은 사회적 불평등과 민족 억압의 상호작용에 의해 주동됐다.

그리고 그런 운동은 팔레스타인인만의 반란을 넘어 아랍 세계와 그 이상의 민중을 고무하는 운동으로 성장해야 한다.

2010년과 2011년에 벌어진 항쟁과 혁명들, [2018년에 시작된] 수단인들의 저항과 [2019년] 알제리에서 벌어진 운동은 승리의 잠재력을 힐끗 보여 줬다. 그러려면 노동자들과 착취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계급적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그런 혁명은 제국주의와 시온주의 그리고 모든 독재자와 왕들을 떨게 만들 것이다. 팔레스타인의 저항이 전 세계에 주는 또 다른 교훈이 될 것이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온라인 토론회
이스라엘 비판이 유대인 혐오인가?

10월 18일(수) 오후 8시
발제 이원웅 <노동자연대> 기자

참가신청 bit.ly/1018-wsmeeting
▶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